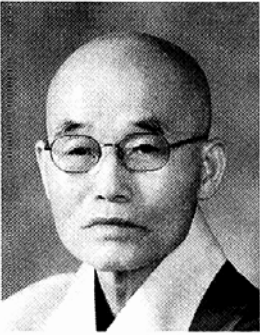


각 종단 봉축법어

지역감정 해소 · 남북화해 통일 지름길

“육체의 나 아닌 일심동체 큰 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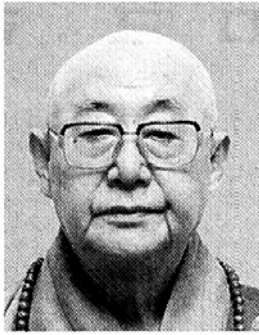
혜암 조계종 종정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체의 스승이시며 사생육도 중생의 아버지이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이 좋은 계기를 맞이하여 국가로 더불어 온 누리에 거룩하신 지혜광명이 가득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축복과 영광 소원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화합이란 말만 하지 말고 육체의 나를 버리고 일심동체의 큰 나로 돌아가 국가재앙의 근본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북녘과 화해 교류 협력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바른 길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백년도 허한 꿈속의 몸이니 즉기로 결심하여 하루 빨리 도를 자각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날의 진정한 축하 의미입니다.

뿌리 없는 채소를 밟아 가득히 심어
밀바닥 없는 바구니에 모두 캐어들어
입 없는 스님들이 한껏 대중 공양하니
부처님께서도 경축일에 환희심으로 동참하시고
멋진 차나 한잔 드십시오.

“모두가 평화·안락속에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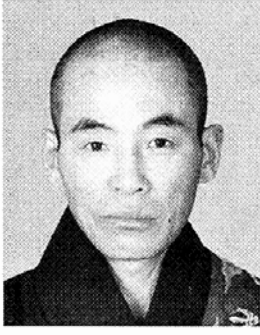


덕암 태고종 종정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혜 광명으로써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주시고 자비광명으로써 고통받는 인간을 제도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같이 평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새천년 새로운 시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발휘하여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밝은 사회 안락한 세상을 건설해야 하고 인륜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혜를 모아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갈등과 증오를 풀고 누구라도 내물같이 여기는 동체 대비심을 발휘하여 내 동포 내 형제를 고통에서 건져내어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락속에 함께 즐기며 살 수 있는 조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인과법칙은 우주 근본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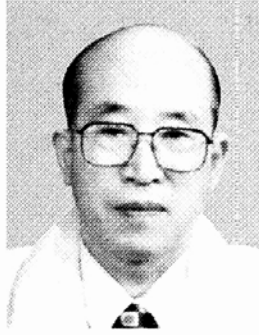


동용 천태종 종정

부처님은 진리의 태양입니다. 저 허공의 태양이 밝은 광명으로 온 누리를 비추고 따뜻한 온도로 모든 생명을 길러주듯이 부처님이 이세상에 출현하시어 밝고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무명의 중생계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따뜻한 자비의 은총으로 모든 생명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우주, 인생과 생명의 실상을 열어보시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 하시는 인간존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고귀한 불성을 계발하여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고 밝은 생활을 창조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고통과 모순과 죄악의 어두운 먹구름이 제거된 광명사회와 정복(淨福)으로 충만한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길을 가르쳐보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우주의 근본원리인 인과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이 고귀한 가르침을 잊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악업을 지으며 비인간의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자비 지혜와 인간존엄, 인과의 원리 그리고 화합사상이 요망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굳건히 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인간정신의 위기와 비인간으로 전락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각하여 인간회복과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리이타 실천 정토세상 만들자”



각해 진각종 총인

부처님오신날의 참된 의미는 우리들 자신이 가진 최고 가치의 발전을 통하여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이루고자 하는 각오와 정진을 새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중생들은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없는 결국 이를 수 없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불에 탄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부지런히 물을 일으키는 노력없는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날 인류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심성의 발전은 그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발전의 대가로 생겨난 각종의 환경오염은 모든 중생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타자리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우리들 불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밀업정토의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는 참회와 실천행으로 이땅에 부처님 오신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갑시다.

생명있는 모든 존재들이 더불어 안락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만다라 세계를 구현하는데 모든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정진, 서원합니다.



혜웅 관음종 종정

멀리멀리 물은 남쪽으로 가고 길고 긴 강은 북쪽에서 오네
옛과 옛이 또한 지금과 지금인데 버드나무가지 위에 피꼬리 소리가 매끄럽다.

백발이 되어도 마음은 늙지 않네

슬프고 슬프고 또 기쁘고 기쁘니 인간사 흥망성쇠와 잠깐이네
옛 사람이 일찍이 말했거늘 백발이 되어도 마음은 늙지 않네
원손은 나는 반갯발 잡고 오른손은 바늘에 실을 꿰네
그림자 없는 나무 잘라라거 저 바다의 거품을 다 태우라.



금파 대한법화종 종정

지혜가 없는 자 미래가 다하도록 자기를 모르고
아집과 편견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자기만 제일이니 어리석은 마음, 병든 마음을 하루속히 버리고 차별없는 대자비로 사회에 공헌하며
부처님께 귀의하여 광등사외 이룩하세



일공 원용종 종정

나 하나만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세계의 모든 것들과 융화하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은 점점 삭막해지고 인간 마음도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스스로는 나하나만의 복락을 취하기전에
동일하게 융화하는 원용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자비의 마음을 본받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정각 범륜종 종정

부처님같이 사바의 중생을 구제 하겠다는 대원력을 세워서 이 사바 세계를 불국의 정토로 장엄해야만 하였습니다. 사상적인 갈등, 빈부의 격차, 소외와 멸시, 대자연의 오염 등이 지구를 온통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청정승풍을 진작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육자 진언종 종정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함이 공존되고 서로의 존재성이 인정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원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서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즉신성불의 길입니다. 밀업국토의 세상이 자기 한 생각에 달려있으니 더욱 정진하여 동체의 삼일수행 즉신성불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지명 조동종 종정

부처님탄생에서 진리를 깨친 자 대법왕이니 / 고해화택 중생 마땅히 제도해야 하느니라 하신바 / 목조의 중도비법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 모든 중생 적자로 여기시는 대비로써 중생 건지셨으니 / 양단되고 혼탁한 삼천리 방방곡곡 산하대지를 / 깨끗이 세척하여 정화하는 선도자가 될 것을 / 삼보앞에 엄숙 서원하오리.



대산 삼론종 종정

우리들은 찬란한 태양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마음 우리의 국토를 진리의 빛으로 밝힐 것을 다짐합니다. 어둡고 대립하고 험준하고 괴로워하던 악몽같은 밤을 영원한 과거로 흘려보냅니다. 불자들에게 의하여 자비와 희망과 뜨거운 우정의 물결을 온사회 온구석 구석에 넘치게 하는 날이 되게 합시다.



혜안 보문종 종정

석가모니부처님께서 탄생에서 열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일체중생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두운 주위를 밝히는 자비의 등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빈자의 일등처럼 정성으로 또한 스스로의 수행으로 무명을 밝힐 수 있는, 금생과 내생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을 밝히십시오.



룩정 총지종 종정

언제나 나의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하여 탐진치 마군을 조복받고 나와 남이 들어 아니라는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나갈 때 진정한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불국정토를 일구어 나갑시다.



혜범 범화본종 범주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사바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스스로가 열어서 청정한 마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현하셨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한민 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해답을 얻은 다음 이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태허 본원종 종정

암흑한 천지에 광명이 솟아나니 삼계도사 사생자부 부처님 나실이다. 생사에 얽매어 알지 못하는 중생의 길잡이였고 사교팔고(四苦八苦) 무량고통 생사 바다 동서미(東西迷)한 고해에 등불이로다. 일등능계천년(一燈能除千暗) 일지능멸만년(一智能滅萬年)을



인왕 여래종 종정

법계의 대법왕의 사자후가 우리들 가슴에 메이리쳐 울리니 불자들의 마음마다에 성태자가 탄생하시도다. 불자들이여, 조고각하(照顧脚下)하여 성성착(醒醒着)하라. 지혜와 자비 광명과 화합을 지니신 부처님의 본분과 서원에 의한 원력을 저버리고 도심 난맥상을 보이는 이 나라 불교는 오늘 탄강하신 불조의 사자후 앞에 부복대참회 하오리.



해곡 열반종 종정

부처님께서는 수행정진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중생들에 가르침을 주셨으며 누구나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빈자의 등' 정신을 통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워 어둠을 밝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여 남을 존중하고 청정한 수행과 이웃과 사회, 국가를 위하여 자비정신으로 봉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부처님 오신날, 봉은사로 오세요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봉은사로 오십시오. 세상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을 초대합니다.

▶ 봉은사 연등 대축제 일정

행사명	날짜	행사내용	장소
교통 안전 호신염주 달아주기	5월 8일~9일	운전자 호신 염주 달아주기	봉은사 앞 도로
제1회 봉은 불교 캐릭터 축제	5월 4일~11일	봉은 캐릭터 전시 및 상품 판매	진여문 앞
연등 대축제 및 제등행렬	5월 7일	연등 축제 및 제등행렬	동대문운동장
봉축 법요식	5월 11일(음.4.8)	법요식 및 판불식	대웅전 앞
마음의 등 나누기	5월 4일~11일	직접 등 만들어 선물하기	법왕루
서원 사랑 나누기	5월 11일	일년 서원 뽕기 및 사랑 나누기	대웅전 앞
봉축 등 점등식	5월 11일 저녁	사월초파일 밤 점등의식	봉은사 경내
거리 축제	5월 11일 저녁	부처님 강림 행사, 거리 공연	봉은사 앞 도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02) 511-6070/4

작은 빛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겨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국의 대장부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와 불국사를 건립했고,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선각자들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나라를 일으켜온 동국의 찬란한 100년!

지금 우리는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원력을 세워 이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려 합니다. 작은 빛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인연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그 공덕은 수미산과 같습니다. 오늘도 동국은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하며 우리시대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 綠 園
동국대학교 총장 宋 錫 球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